

부활 제 2 주일

기도서 283 면

제 1 독서 : 사도 4, 32-35

제 2 독서 : 요한 1서 5, 1-6

복음 : 요한 20, 19-31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목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믿음은 보배

이 재 후 신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리켜 보석 또는 진주라 말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금인것 같습니다. 금은 언제까지나 보존되고 불변하기 때문에 금으로써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곧 믿음입니다.

세익스피어는 일찌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한동안 무대 위에서 광대 노릇을 하고는 소문에도 오르지 않게 되는 비참한 배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빌려본다면 인생의 최대 가치는 영원을 찾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물에는 제각기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있습니다. 사슴에는 뿔이 보배요, 벌은 가죽이 보배요. 사람에게는 이를 석자가 보배인줄 압니다.

하느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실 때 당신 마음에 두실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가장 보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느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 11, 6)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백인대장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마태 8, 11)고 칭찬하셨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15, 28)과 하혈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믿음(9, 22)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귀한 믿음을 금력 때문에 묻어두고 향락 때문에 현신처럼 내버리고 권력 때문에 내쫓는 일은 없는지요?

스펠존은 신앙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성은 쫓불과 같으나, 신앙은 태양의 광선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 앞에 주님이 서 계시더라도 그는 예수님이 동산지기로부터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찾고 전인격을 바치고 믿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월명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언론의 자유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소위 <원주사태(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에 따른 최기식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관계 당국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국민과 교회를 분열 이간시키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우리의 진실을 밝히려고" 발언한다고 했다.

반론권(反論權, right to reply)이라는 게 있다. 언론의 자유의 보장은 언론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언론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국에서나 신문에서 비난 공격을 받은 자는 이에 반론할 기회를 방송국이나 신문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제20조에서 피해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성주간 동안 한국 천주교회는 그야말로 수난의 바늘 방석에서 몸돌 바를 몰았다. 대문짝만한 특호 활자로 꾸며진 머릿기사들, 신명이 난뜩(?) 읽혀 내려가는 방송들, 곁들여지는 시민의 소리에 귀가 멍하고 눈썹이 찌프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다가 일부 종교 단체들이 던지는 돌덩이(성명서)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어찌서 천주교는 이적집단으로 몰려야 하는가? 왜 천주교의 소리(추기경 미사 강론,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성명)는 3단이나 1단기사(C일보)로나 취급되어 우리의 눈길을 벗어나게 하는가? 4단기사로 취급되는 "사장집 살인강도"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그것이 바르고, 공평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의 자세란 말인가?

추기경의 지적처럼 여론의 오도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참된 민주복지국을 위해서는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공정한 언론, 정확한 보도, 책임 있는 비판을 기대한다. 그리고 반론권이 보장받지 못할 때 응어리진 한(恨)들이 우리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숲 정 이 산책



맞을수록 넘어지지 않는다!

양심법과 범인 은익

—최신부 사건에 대한 부산 교구 성명(강론)—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부산 미 문화원의 방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수사 과정의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그 배후 인물로 최기식 신부가 등장되면서 매스컴의 과잉 보도는 마치 최기식 신부가 방화의 주모자이며 좌경의식화 교육의 주관자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이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런 보도의 홍수를 이루게 한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고 국민들로 하여금 위화감, 불신감, 혐오감에 빠지게 하는 이번 보도의 진전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기식 신부는 어떤 저의에서 김현장이라는 광주 사태의 범법자로 지목된 사람을 은닉시켰는지 우리는 들은 바 없어 알 수 없지만 그는 교회의 신부이기에 우리가 몇가지 점만을 분명히 밝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의 신부가 방화를 교사할 수도 없고 좌경화 의식 교육으로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자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 사태라는 것이 본시 유언비어가 많았던 사건이고 보도의 관제로 우리는 그 진상을 알 수 없었기에 광주 사태로 말미암아 쫓기는 사람이라면 동정하여 은신처를 제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3자나 공익에 다른 피해가 확실시 되지 않는다고 양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앙인은 은신처를 비는 범법혐의자를 고발하여 현상금을 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만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이 계시하신 정의는 악을 선과 사랑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 신앙의 양심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회의 실정법을 무시하라는 말로 오해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양심법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범했다면 양심법을 따랐으니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정법을 만든 사회의 법대로 공정한 처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법을 따르다보면 국사범이 될 수도 있고 국가보안 사범, 또는 범인 은닉의 형사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의 시야는 오늘의 사회판으로 좁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라는 미래 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현실이 강요하기 쉬운 우상들—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에서 해방되어 자유스러히 인간 본연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난한 사람과 깃잡히는 사람에게 동정적인것은 재물의 유무와 권력의 유무로서 인간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흔히 소외되는 것

이 인간 사회이기에 이런 소외에서 벗어난 사회를, 곧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인간 존엄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소중함을 그리스도교 신앙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있고 종교가 있다”는 말을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있고 종교가 있다”는 말은 흔히 현정부가 없으면 국가가 없어지고 공산주의 국가에 흡수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한 이 말을 일반화시켜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주체성을 잃고 정부에서 시키는 말만 반복하는 사회가 된다면 공산주의가 겁이 나서 공산주의 식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하고마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성 안에 대화로써 인간다운 사회가 가능한 것이 지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자는 용납되지 않는 사회, 혹은 지시와 단속만이 위정자의 일이고 국민은 고발이나 하고 포상 내지 일계급 특진의 혜택이나 바라고 살아야한다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발은 국가 공익을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발만이 능사라고 강조될 때 불신 사조라는 더 큰 사회악을 조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한사람을 형사 입건하기 위해 이번 사건과 같이 많은 보도가 된 것을 본 일이 없기에 우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일에 신중을 기하여 필요없는 불신과 국민 여론의 오도에 대한 오해를 벗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기식 신부와 모든 피의자들에게 공정한 조사와 재판울 바라는 바이며, 부산교구 모든 신자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고통에서 하느님은 좋은 것을 만들어 내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재물을 가진 자는 재물을 갖지 않은 자를,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갖지 않은 자를 소외시키는 것이 인류역사이며 인간의 소행이지만 하느님은 가진것에 의해 판단하시지 않고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봉사할 수 있었는가에 의해 판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부활은 이런 삶이 죽음의 허무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존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삶은 폭력에 비폭력으로, 권력행사에 수난과 죽음으로 표현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82. 4 부활절에

천주교 부산교구장 주교 이 갑 수
천주교 부산교구 사제단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주님의 전당이 이루어짐을 감사드리며 (5월중 준공예정), 다음 성물과 비품을 봉헌 하실 분을 찾습니다.

제대 40만원 독서대 1조당 15만원 (2조) 마이크 시설 50만원 성광 45만원 예절의자 1조당 7만원 (3조) 제의장 및 비품 30만원 성수대 10만원 성당의자 1조당 8만원 (40조) 주수상 6만원 제대 S 클리스 1조당 35만원 (4군)

연락처 52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3201

550-17 김계군 금산면 원평리 1-4

원평 천주교회 원평 7번 원평성당 주임신부

백선행 무료시식회

4월 19~21 오전11시부터

순정이슈퍼마켓

전주시 진북동 1159-5

전화주문 배달함

(순정이성당앞)

전화 ㉠ 3550

김원경(시릴로)·박효송

*** 커피 專門店**

순정 Coffee

전신전화국앞, 임금님다방 2층

☎ ㉠ 5011



원주 사태에 대한 김수환 추기경님 강론

사랑을 떠나 사제적의 수행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 사제의 삶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제가 참으로 모든 이의 형제가 되고 그 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난한 이, 약한 이, 버림받은 이 등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우리를 진실히 형제적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열 줄 알고 또 배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큰 회생을 요구하고, 비록 이것이 우리에게 큰 시련을 초래하고 목숨을 바쳐야 하는 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제로서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때마침 사제의 이런 신원을, 사제의 이런 근본을 생각케하는 사건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제, 원주교구 최기식 신부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양심대로 이 사제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법의 문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여러 사제들이, 또 수도자, 평신도들이 같은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결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너무 깊이 우리 나라의 정치 현실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2년전에 우리가 뼈아프게 치렀던, 아직도 그 상처가 마르지 않은 광주 사태와 너무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확실히 이 시대의 우리 사회와 우리 겨레의 아픔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아픔을, 왜 이 상처를 이시간에 이렇게 야단스럽게 매스컴을 통해서 떠들어대고, 여론을 오도해서 마치 우리 가톨릭교회가 범죄의 소굴인 것처럼 이렇게 유도해가고, 그러므로써 누가 이익을 보는가, 나라에 이익이 되는가,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되는가 묻고 싶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속죄의 재물이, 속죄의 공양처럼 되어 주어야만 이 사회가 안정을 기하고, 번영을 기할 수 있다면 기꺼이 교회를 대표해서 저라도 되어 주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적어도 이번에 관련된 사제는, 이른바 수배중인 범인을 은닉시켜 주었다는 혐의 때문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는 수도 있고, 아주 못마땅히 생각하는 분도 있고, 현명치 못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셨겠는가. 예수께서 범법자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면 밀고를 했겠습니까? 또 범법자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를 쫓는 자들과 함께 돌을 던졌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심지어 날주게들, 오늘날의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까지 받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고발자들 손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뿐더러 마태오 복음 25장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들과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번 사건이 사제생활의 한 단면이다, 일부 사람에게 국한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 사제들의 신원을 근본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인간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형제가 되기 위하여, 또 모든 인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신 바쳐야 하는 그 사제, 그리고 사회의 양심이 되어 주어야 하는 사제의 신원을 묻는 사건입니다.

사제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람의 형제로써 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과 그 고통, 상처까지도 나누어야 하는 것이 사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우리들의 상처를 낫게 해주셨듯이 사제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해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이 길을 가는데 무척 피로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기까지 피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는 동안 피땀을 흘리시기까지 했습니다. 「성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멀리해 주소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사제들은 이 기사를 본받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들이 사제 서품을 할 때 주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새롭게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성유축성 미사에서)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갇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마태 5, 11~12)

요심이 (454) 김병오

당국입니까?
요새 TV와 신문에
신부님들이

광주사태관련자들을
숨겨주었다고
날마다 후려쳤는데

광주사태내용을
일반국민은 전혀
모르고있으니

사태발생원인부터
자세히 알려
주시면...

의료효과의 선구자
神秘食品 土龍

W. B. S

「정제, 엑기스, 치밀판, 환, 분말」

※ 토 롱 탕

〈왜관 수도원 제조〉

성모 토롱 센터

(전주 영업소)

사무실 : 구 삼남극장 사거리
(호남약국 2층)

전화 ③ 3 2 5 7

김 (미카엘)

신진 가스 상사

신속배달
가스렌지
기구시설
수리상담

전화 ③ 5448
1071

K. B. S 전주방송국 앞
최 안 드 레 아



- 제 4 차 레지오 연수회 개최 : 4월 24일 3시~25일 4시 (1박 2일)
 등록-24일 2시~3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꼬미시움산하 전 단원 (기연수자 제외)
 등록금-6,000원 (3,000원은 브레시디움 보조)
 일정 : 24일-하승백 회장 특강,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화 상영, 25일-주교님과 세나투스단장 특강
- 축! 영명 : 김 윤섭 (안셀모) 신부님 : 4월 21일. 함께 기도중에 기억합니다
- 휘콜라레 하루 마리아 뿌리 : 일시-18일 오전 9시, 장소-전주 성심여고 강당, 대상-남·여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 참가비-천원 (점심 및 간식 제공)

(중앙)

전화 ①71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광
 사도 회장 박관문

- ※ 성경읽기 : 사도행전 4장~6장, 요한 3장~6장
- 성모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양노원
 - 사마리아인회 : 21일(수) 오전 11시 회합실
 - 복자반 영세자 모임 : 21(수) 오후 7시 강당
 - 병자방문 : 20일 병자를 모시고 계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휘콜라레 하루 마리아뿌리 : 18일(일) 오전 9시~성심여고 강당, 남여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참가비 (1,000원) 중식 제공
 - 영세자들은 사무실에서 영세 기념사진을 찾아가세요
 - 애령회 : 공식미사 후, 회합실
- 지난주 봉헌금 : 1,398,795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성원
 보좌 신부 박홍재
 사도 회장 이홍재

-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행사 : 24일(토) 오후 2시 30분, 행동 협조단원들의 전원 참석바랍니다
 - 공소를 도와줍시다 : 보다 많은 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 미사시간 변경 : 19일(월)부터 저녁미사가 저녁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 금주의 성경읽기 : 구약의 신명기 전체
 - 부활행사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초, 제대꽃, 주일학교에 부활달걀을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신용조합 관광교육 : 5월 16일 (1일 코스)
 장소-영산강 하구연, 해남 대룡사
 자세한 것은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 성령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 남자 예비자 교리 : 매주(목) 저녁미사 후
 - 학생 예비자 교리 : 매주(토) 오후 4시
 - 젠 모임 : 매주(토) 오후 5시
- 지난주 봉헌금 : 626,727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열
 사도 회장 양상열

-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 19일~22일 (3박 4일)
 접수-19일 3시~3시 30분까지, 장소-가톨릭 센터
 - 예언자 모후 아치에스 행사 : 25일 오후 2시 전단원과 협조단원 전원 참석 바람
 - 부활행사에 협조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헬레나, 임안나, 나바올라, 익명-제대꽃, 황울리 안나 자매-화단 헌수
 - 애령회 회사금 : 엄익봉 형제 내에서 6만원
- 지난주 봉헌금 : 822,630원

(복자)

전화 ④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 사도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주일학교에 어린이들을 빠짐없이 보냅니다
 오후 2시-교리, 오후 3시-어린이미사
 - 분당신부 회합에 많은 기도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24,440원
 예루살렘성지 : 87,945원
 사랑의 나눔 현금 : 86,01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 할머니회 : 공식미사 후
 - 돼지저금통 사무실에 봉헌합니다
 - 레지오 연수회 : 24일~25일까지 신청 바람
 - 사제양성후원 신입 바람 : 4월까지 마감
 -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박병환 ②김수길
- 지난주 봉헌금 : 455,795원
 교무금 : 144,0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②9567 사도 회장 김수겸

- 축! 영세자 55명 축하합니다
 - 성모회 월례회 : 4월 18일 공식미사 후
 - 성 프란치스코 영화 상영 : 일시-4월 25일 밤 8시
 장소-숲정이성당, 대인 500원, 학생 300원
 4월 11일부터 사무실에서 예매합니다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남자선생님을 모시고자 하니 희망하신 분은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 전례담당 : 해설-이철수
 독서 ①누재두 ②김창영, 기도-정주복
 - 미사참례자 안내 : 허옥순·조금주·박봉자·조혜마·정복주
- 지난주 봉헌금 : 509,690원

(전동)

전화
 신부 ⑥208 주임 신부 김병엽
 사무 ③222번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⑧347 사도 회장 이종두

- 꼬미시움 : 오늘 오후 2시
 - 성화회 : 공식미사 후
 - 글라라 형제회 : 다음주 오후 1시
 - 부활판공 안보신 분 성삼주일까지 보아야 의무를 다 하시는 것입니다
 - 젊은이 성지순례 (4월 25일) : 절두산·미리내 현재 접수중
 - 구역장 지도의원 모임 : 21일(수) 저녁미사 후
 - 예비신자 모집 : 청년모임-수·목 7시반, 중·고생 모임-토 오후 3시, 일반모임-일 공식미사 후
 - 신축기금 : 김인찬·박순기·김창선·박씨 (각 10만원), 조수도·김씨·정기양(각 5만원), 문치구(8만원), 김복남·오경미(각 1만원), 서영자·이영철(각 5천원), 정덕주(3천원)
 소강당 및 수녀원 신축기금 빨리 신입하여 주십시오
 -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이주철, 독서-①김동연 ②이현재
 공식미사 : 해설-박종우, 독서-①유기동 ②백종훈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정동희 ②장수철
- 지난주 봉헌금 : 1,168,17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 선교분과 위원회 : 오늘 저녁미사 후
 채수현, 유병환, 이정선, 박수홍, 김 숙, 송길정, 박성준, 정정수
 - 교육분과 위원회 : 다음주에 있음을 예고
 -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가대 청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오늘 수집된 고의를 갱생원에 전달하겠습니다
 - 성가대를 위주해서 레지오 브레시디움을 "평화의 모후"라는 명칭으로 시작하겠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89,700원
 교무금 : 162,000원